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소비자 설문 결과, '고소득층도 생활비 우려'
- CNBC: 소비자 수요 우려 늘자 기업체 CFOs 경제 자신감 떨어져
- CNN Business: 노벨경제학자 16명, "트럼프 당선시 인플레이 더 악화"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트레이더들 내년 3월까지 금리 3% 하락에 베팅
- Bloomberg: 증시, 강세를 보인 2분기의 마지막 주에 흔들려

[물류]

- Bloomberg: "항만 파업 우려에 바이든의 개입 요구하다"

[유가]

- Bloomberg: 유가 하락... 미 원유 비축량이 예상보다 증가한 탓

[주택]

- CNBC: '여름에도 주택 시장 약세'... 모기지 금리와 수요 모두 정체

[미중 경제]

- Bloomberg: 바이든 관세 조치, 용접공부터 간호사까지 각계각층에서 비판

[글로벌 경제]

- WSJ: 5월 캐나다 물가 2.9% 상승 ... 금리 인하 의구심 커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FedEx, 올해 매출 성장 전망에 주가 호조
- WSJ: 아카데미 스포츠 & 아웃도어, '쇼핑 시즌 연계 프로모션'으로 고객 유도
- Bloomberg: 에어버스, "향후 2년간 항공기 인도 지연 가능성"
- CNBC: 유튜브,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 강화... 미디어 업계, 우군 or 적군 판 단 고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Even High Earners Worry About Making Ends Meet, US Poll Finds

소비자 설문 결과, '고소득층도 생활비 우려'

- 내년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 미국인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 10만불 이상 소득자들도 포함해서 이같은 우려가 있다고 필라델피아

아 연준의 설문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향후 6개월간 생활비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같은 비율은 작년의 28.7%보다 높았다. 향후 7개월이나 12개월에 우려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 심지어 연 15만불 이상 소득자의 30%가 향후 6개월간 그들의 재정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CNBC: Top corporate CFOs are losing some confidence in economy, as consumer demand fears spike

소비자 수요 우려 늘자 기업체 CFOs 경제 자신감 떨어져

- CNBC CFO Council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분기에 기업들의 소비자 수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상당수 CFOs들은 내년까지 첫 금리 인하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고물가는 2026년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 CFOs들은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장 큰 이슈라면 이 시점에서 이들의 60%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Trump would make America's inflation crisis worse, 16 Nobel economists warn

노벨 경제학자 16명, “트럼프 당선시 인플레 더 악화”

- 현재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가 공적(public enemy) 1위다. 미국인들은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러나 노벨 경제학자 16명이 경고하기를 트럼프의 방안은 인플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 이같은 경고 서한은 유명 경제학자인 Joseph Stiglitz가 주도했는데, 그는 트럼프 어젠다가 인플레를 일으킬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이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예산’과 피터슨 연구소,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등 초당적인 연구소들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어젠다가 시행될 경우 인플레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ond Traders Boldly Bet on 300 Basis Points of Fed Cuts by March**국채 트레이더들 내년 3월 까지 금리 3% 하락에 베팅**

- 미 금리 옵션 시장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금리 경로와 관련하여 향후 9개월 동안 무려 3% 하락에 베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일간의 거래 기간 중에 담보 오버나이트 파이낸싱 금리(SOFR)와 연계된 옵션 시장의 포지셔닝은, 연준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2.25%로 낮게 인하할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베팅이 늘어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ch Versus Rest' Has US Stock Rally Wavering: Markets Wrap**증시, 강세를 보인 2분기의 마지막 주에 흔들려**

- 일부 대형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한 강한 2분기 증시가 마지막 단계에서 출렁이고 있다.
- 최근 대형주들에서 폭을 넓히려는 시장의 노력은 오래 가지 못했고 시장 내 주식의 폭 넓은 랠리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약한 가운데, 랠리의 유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Bloomberg Intelligence에 따르면 S&P 500의 성과와 종목들의 폭 사이의 분기점은 30년 동안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 Bahnsen Group 의 David Bahnsen 은 “주식 시장이 빅테크주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나친 투자심리, 자아 도취감, 과장된 모멘텀은 항상 똑같은 결말로 끝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US Industries Fearing a Port Strike Urge Biden to Revive Talks

"항만 파업 우려에 바이든의 개입 요구하다"

- 수십 개의 산업 단체들이 동부와 서부 항만의 노동자들과 항만 운영업자들 간의 임금 관련 대화가 다시 시작 될 수 있도록 백악관의 개입을 촉구했다. 가뜰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위해 양측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달 초에 The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와 the US Maritime Alliance간의 계약 협상이 깨졌다.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근로 계약은 미국의 분주한 10대 항만 중에 6개를 포함해 항만 노동자 4만5천명에 해당되며, 올해 9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유가]

Bloomberg: Oil Retreats After US Crude Inventories Unexpectedly Increase

유가 하락... 미 원유 비축량이 예상보다 증가한 탓

- 미 원유 비축량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오일 가격이 떨어졌다. 시장 상황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 연방에너지정보국이 3백59만 배럴의 비축분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후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8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가솔린 비축분도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BC: Both mortgage rates and weekly mortgage demand are stuck in place, suggesting a slow summer housing market

‘여름에도 주택 시장 약세’... 모기지 금리와 수요 모두 정체

- 봄에 이어 여름에도 주택 시장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는 최근 최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 매물의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주간 모기지 수요는 2주 연속 정체 상태이다. 모기지 은행 협회의 계절 조정 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 모기지 금리도 큰 변동이 없었다. 대출 잔액 \$766,550 이하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6.94%에서 6.93%로 약간 하락했으며, 계약금 20%

대출의 경우 0.61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 주택 재융자 신청은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1년 전 같은 주에 비해서는 26% 증가했다.
- MBA 이코노미스트 Joel Kan은 발표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모기지 대출자들이 상당히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는 여전히 재융자 대출자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Biden Tariff Complaints Pile Up From Welders to Nurses 바이든 관세 조치, 용접공부터 간호사까지 각계각층에서 비판

- 지난 두 달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주요 광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특정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 관세에 대한 바이든의 첫 조치이다.
- 5월 말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Katherine Tai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열었으며, 오는 금요일에 이 기간은 마감된다. 일부 관세 변경 사항은 8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 USTR에 제출된 100건이 넘는 의견서에는 관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협회가 포함되어 있다. 금속 회사들은 관세 인상을 미국 산업 보호로 환영하는 반면, 중국 상공회의소는 이 조치가 무역 및 공급망을 방해하고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강과 안전에 기반한 의견도 있었다. 미국 신생아 간호사 협회는 주사기에 대한 관세가 영아에게 안전하게 수유하는 능력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부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없애는 것을 비판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Canada Inflation Picks Up in May, Rising 2.9% 5월 캐나다 물가 2.9% 상승 ... 금리 인하 의구심 커져

-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2.6%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4월 인플레이션 2.7%에서 상승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예정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캐나다 달러와 국내 채권 수익률도 데이터 발표 후 상승하며, 트레이더들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음을 나타냈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월간 및 연간 CPI 헤드라인과 일치하며 상승했다.
- 5월 월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0.6% 상승하여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두 배나 초과했다.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도 상승세를 보였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edEx Stock Tests Multiyear Highs After Company Snaps Streak of Sales Declines**FedEx, 올해 매출 성장 전망에 주가 호조**

- FedEx 주가는 매출이 소폭 개선되었다는 소식에 힘입어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며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뒤집었다.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13% 이상 상승하여 291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2021년 이후 최고치인 300달러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분기 매출은 2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22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다. 회계 연도 매출은 877억 달러에 달했다.
- FedEx는 올해 한 자릿수 초반에서 중반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WSJ: Sports Retailer Hopes Must-Have Gear and Seasonal Deals Can Entice Wary Shoppers**아카데미 스포츠 & 아웃도어, '쇼핑 시즌 연계 프로모션'으로 고객 유도**

- 아카데미 스포츠 & 아웃도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립기념일 등의 공휴일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피클볼 장비, 호카 운동화 등 최신 트렌드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증가를 꾀하고 있는 것.
- 기업은 최근 3개월간 동일 매장 판매가 5.7% 감소하는 등 9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가 상품, 인기 제품 및 브랜드, 단골 소비자를 위한 독점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 특히, 평균 가계소득이 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아버지의 날, 독립기념일,

신학기 등의 특정 쇼핑 시즌과 연계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아카데미의 CFO인 Carl Ford는 고객들이 특별한 날에만 쇼핑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는 중요한 쇼핑 시즌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이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SJ 기사

Bloomberg: Airbus Tells Airlines Some of Their Deliveries in 2025 And 2026 May Be Delayed 에어버스, “향후 2년간 항공기 인도 지연 가능성”

-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향후 2년간 인도 예정인 일부 항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에어버스의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최근 2025년과 2026년에 인도될 항공기 중 일부가 계약 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했으며, 인도 지연이 수개월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 에어버스는 엔진, 구조 부품, 객실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부품 부족으로 인해 2024년에 예상했던 항공기 수를 인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320 모델의 월 생산량을 75대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1년 연기되어 이 모델의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 에어버스 CEO Guillaume Faury는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한 후 컨퍼런스에서 현재 계속해서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정학적 긴장과 특정 공급망 문제로 인해 회사의 운영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CNBC: YouTube dominates streaming, forcing media companies to decide whether it's friend or foe 유튜브,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 강화... 미디어 업계, 우군 or 적군 판단 고심

- YouTube가 5월 미국 내 커넥티드 TV 및 기존 TV 시청률에서 9.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스트리밍 플랫폼 중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는 Netflix의 7.6%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 LightShed media의 애널리스트 Rich Greenfield는 아이들이 TV를 통해 YouTube 콘텐츠를 소비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회사들은 YouTube를 전략적 동반자로 볼지, 경쟁 플랫폼으로 간주할지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부 미디어 경영진은 YouTube를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와 케이블 TV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YouTube가 뉴욕과 할리우드의 전문 미디어와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 성향의 크리에이터 주도 콘텐츠로 구성된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경영진 중 일부는 YouTube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YouTube가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청률을 빼앗고, 미국 젊은이들의 문화적 중심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상반된 견해 때문에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높아지는 YouTube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CNBC 기사

美연준 금리인하 놓고 이견..."언젠가 인하"vs"추가 인상할 수도"

쿡 "인하 필요하지만 시기 불분명"...보먼 "인하 개시할 때 아냐"
"인플레이션 올해 점차 둔화, 내년에는 둔화속도 빨라질 것"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언젠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은 올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다가 내년에는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25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노동 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의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